

# 光日春秋

김탁환



춧불로 뜨거운 6월이다. 거리로 내러온 별무리처럼 총총 빛나는 불꽃을 따라, 어느 가난한 병자를 떠올린다. 그의 이름은 유마다.

작년 여름 인도를 떠돌 기회와 있어 바 이살리란 도시에 들렀다. 흉탄을 속을 헤엄치는 물소 곁에서 일 번을, 한 시간을, 한 나절을 흘러 보냈다. 흥수 탓에 같이 끊긴 저 건너 마을이 바로 내가 꼭 방문하고 싶었던, 참 맑은 영혼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유마다.

1980년대 유마는, 종교적 색채와 무관하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지식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마경' 곳곳에 보살의 대비심(大悲心)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다. "자식이 병들면 부모도 병들고 자식이 나으면 부모도 낫습니다. 보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중생을 마치 외아들처럼 사랑합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낫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의 목소리는 황지우 시인의 '늘어나는 아내에게'에서 놀라운 사당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아프던 날 / 그대가 와서,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러나 속에서는 / 몇 날 밤을 잠 못자고 단련시켰던 뜨거운 말 : / 저도 형과 같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 다시, 유마거사를 생각하다

같은 병을 앓고 싶다는 말보다 더 가슴 절절한 말이 있을까. 같이 '죽는' 일은 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같이 '살는' 일은 서로를 품고 이해하는 제법 긴 '동안'이다. 그의 병까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감내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흔히 사랑 이야기에 질병이 동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병이 결핵이든 암이든, 사랑 이야기에는 궁극적으로 함께 아파하고픈 갈망과 더 이상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절망이 교차한다. '늘어나는 아내에게'를 읽은 후, 프랑크 작가 아니 에르노의 소설 '단순한 열정'을 펼쳐드는 것도 이 도저한 은유에 매혹된 탓이다.

"어느 날 에이즈 검사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내게 그거라도 남게 놓았는지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질병일지라도, 사랑하는 이로부터 나왔고, 하여 그와 함께 앓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것! 이보다 더 정직한 사랑의 자세를 나는

알지 못한다. 2008년 6월, 대한민국의 화두는 '소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법을 이야기했고 관례를 거론했고 논리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의 잔치상은 지루하고 식상하다.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춧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국민과 같은 자세로 국민과 같은 병에 걸려 잠시라도 알아보기를 권한다.

그 아픔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말도 헛것이든 소통은 불가능하다.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추가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춧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는 소리로 들려오고 계속 더 목소리를 높이지는 주장도 있다. 과연 정부는 이 난제를 어찌 풀어야 할까. 지금이야말로 유마거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중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중생을 그 지위나 능력의 단면에 따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고개 강조했다.

"대도(大道)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작은 길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저 반딧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 바다를 수발자국 안에 넣고 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사자후를 들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취급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집회의 사소한 잘못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늘 기쁘게 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는" 바로 그 크나큰 기쁨(大喜)을 추구할 때다.

(소설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한나라, 여수엑스포 '적극 지원' 기대 크다

한나라당 민생탐방단이 어제 여수를 방문, 2012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탐방단은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는 물론 남해안 전체가 크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민생탐방단의 여수 방문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대다 탐방단에는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상득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직접 민심을 듣고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원을 다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상득 의원은 "외국에 나가는 여수처럼 아름다운 곳은 많지 않다"며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를 관광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원은 "세계박람회를 통해 여수와 목포, 고흥, 남해 등 남해안이 공동 발전해야 한다"며 "남해와 광양을 잇는 대교 건

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은 "한나라당은 진정성과 현상성, 계속성이라는 3면적을 갖고 호남에 접근하고 있다"며 "호남이 예산과 인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관광과 해양과학에 관심을 가질 것도 주문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람회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 반영액은 실망스럽다. 조직위는 최소한 2천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1천800억원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국고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박람회는 성공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박람회 국고지원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박람회 준비기간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정부와 적극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여수 세계박람회 적극 지원 약속은 '립 서비스' 수밖에 없다.

###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경제 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물가가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소비자 체감경기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고물가·소비·투자 위축·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게다가 '제 2의 외환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는 이달 물가가 5월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9%보다 높다면 5%대라는 얘기가. 반면 올해 성장률은 4%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들은 더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 하반기 성장률이 3~4%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감내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2분기에 86%로 전분기보다 19포인트나 하락했다. 1997년 3분기의 24포인트 이후 최대의 낙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1인당 개인 빚은 1천563만원으로 1년 전 1천527만 원에 비해 36만원 증가했다. 고물가, 부채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가구비율은 10년 동안 10% 줄었고, 그 가운데 7%는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과 비전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과 비전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과 비전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과 비전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기고

### 한계현

고상성어에 사목지신(徒木之信)이라는 글귀가 있다. 조선조 시대에 백성들이 도무지 조정(나라말)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대신이 광화문통 한쪽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고 반대편으로 옮겨 놓으면 업전 백성을 준다라는 방을 불렀는데 백성들 알, 대명천지에 별미친놈을 다 본다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조정의 방을 믿지를 앓았다는 고사다.

과연, 오늘의 이명박정부는 어떤가? 도대체가 믿을 수도 없고, 믿을 것이 없다. 강부자가 그렇고, 고소영이 그렇고 그리고 또 조중동이 그렇다. 국민이 싫다는 쇠괴를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가. 자연을 그리워하는 천혜의 금수강산을 백년 후에 무지개인 대운하로

### 한계현

해를 불지라도 이치가 옳으면 의를 좇아야 하는 건데 지금 꼴을 보면 분명 잘못된 보수, 잘못된 실용주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기 마련이다. 그러나 잠시 바람이 지나가면 풀잎은 다시 일어선다. 바로 민심이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나무 잎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에 드러눕는 국민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심히 자성론을 촉구한다. '대학'에 '지자천려 필유일실, 우자천려 필유일득(知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의 기적을 이룩했

### 민심은 천심이다

요절을 내려고 하지 않는가. 100만인의 춧불의 봉화가 40여일을 불타오르고 있었던 이명박정부는 눈먼 장님들이란 말인가? 국민경제는 물론 물가지출에 비상등이 켜져있음은 실로 감당할 어려운 고통의 산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물가보다도 더 앓을하고 마운 아픈 것은 인간(국민)으로써의 가치관과 사명의 점이다. 지금 내각을 보면 도대체 사람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 인생은 연극과도 같은 것. 무대위에 막이 내리면 왕도 신하도 하녀도 모두다 똑같은 배우들이다. 그리고 또 죽으면 모두가 3평 이하의 땅속으로 묻혀진다. 노동자, 국민들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빌딩 숲의 노을과 더불어 피는 황혼이 그리울 뿐이다.

이 정권 출범 당시 진정 보수주의자로서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도도한 출정식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 보수는 이(利)가 아닌 의(義)를, 비록 손

다고는 하나 이 대통령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광장의 촛불축제를 보고 옛날을 생각했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믿기 어려운 모처럼의 소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로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 호언과 자랑보다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평가가 곧 자량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고유가, 쇠고기, 노동계 파업 등 정치 실종의 위기와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대연대나 시장경제론이 아닌 약자의 편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노동권, 생존권 등 애정어린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통치자의 가슴속엔 진정으로 '죄와 탐과 눈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심은 곧 천심이기 때문이다.

(전 나주시의회 부의장)

### 상황극 어린이 범죄 예방 효과 커... 학교서 의무적 시행을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유괴나 성범죄에 항상 불안감을 가진다. 등하길 안전은 물론 놀이터, 학원 가는 길까지 점검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이를 유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35초라는 소름 끼치는 연구 결과가 있다.

35초 안에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가정에서 어떻게 안전지도도를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같은 상황을 가정한 상황극을 만들어 직접 참여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범죄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리를 질러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다. 상황을 가정해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배우가 되게 해서 상황극에 직접 참여케 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상황극을 통해 납치범이 돼보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서 납치를 지켜보는 시민이 되거나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 되어 휴대전화로 경찰에 연락도 해볼 것이다. 실감나는 교육이 될 것이며 절박함을 느낄 것이다.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같은 상황극을 의무적으로 1학기에 1회 이상 실시했으면 한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윤종근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런던의 가옥과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차조각과 물무더기에 매몰되어 구출된 사람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으로 약 400명이 동양철강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약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 일본 아카사카시 JR 후쿠치야마 선 기차 탈선사고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이 증상이 나타났고, 그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크래시 증후군(Crash Syndrome)에 대한 설명이다. 크래시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급적 구조현장에 서부터 수색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72시간 안에 매몰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매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한계치가 약 72시간 정도이기 때문이다. 매몰된 사람들은 건물 debris 속에 갇힌 상태에서 하루 동안 평균 1.5L의 수분을 배출한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고 심장을 움직이는 심근의 수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72시간이 지나면 죽어 있는 상태로 구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살아서 구출된다 하더라도 크래시 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 살아난다고 해도 죽는다-크래시 증후군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최근 중국 대지진으로 인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강진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었지만 매몰 후유증으로 인해 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허리나 넓적다리 등의 큰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 내에 산소를 저장하는 미오글로빈에서 만들어진 독성물질이 대량으로 체내에 쌓이게 된다. 구조 후 압박 상태가 갑자기 풀리면서 이 독성물질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와 요새관을 막을 경우 급성신부전이 생기는 것이다. 또는 장시간 압박을 받은 후 혈액 중 칼륨이 급속히 증가해 심장근육 이상으로 부정맥이 생기며 처치가 늦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

크래시 증후군의 경우 자체역성 쇼크의 조기 처치 및 급성신부전증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수액공급과 강제 이뇨가 시행되어야 한다. 체액이 부족하여 혈압이 저하되는 자체역성 쇼크는 폐쇄된 공간에서 골절로 인한 출혈이 계속될 때

급사할 위험이 크다. 특히 가스 괴저병은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부상 등으로 생긴 상처 부위가 가스 괴저균에 감염되면 박테리아가 내보내는 독성물질이 가스를 만들면서 조직이 괴사하는 병이다.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일단 감염될 경우 발병하면 12시간 내에 즉사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다. 가스 괴저병과 같은 전염성을 가진 질병들은 매몰지 전역에 걸쳐 부패된 시체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다.

대량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건물의 잔해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은 짓누르고 있는 물체를 치우는 데만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구조활동은 오히려 그 대상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구조에 앞서 구조대원 및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과의 긴밀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 시 전문적인 사전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 구조작업에 임하여야 크래시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동강대 응급구조과 교수)

### 새로운 장묘문화 '정원형 자연장' 활성화되길

자연장이라는 새로운 장묘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자연장은 기존 수목장 개념을 확대해 부모 대신 나무는 물론 꽃과 잔디로 묘지를 꾸미는 방식이다. 즉,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연장은 보통 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화장한 유골을 묻고 잔디로 매운다. 이렇게만 하면 평당 수습구의 화장한 유골을 묻을 수 있으니 기존 분묘보다는

수습배, 납골묘보다도 10배 이상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정원형 수목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도심 곳곳에 장미 정원 형태의 추모공간이 들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원형 자연장 공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 無等鼓

여권(passport)은 외국 여행자에게 해당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 서류다.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 관련에게 자국민의 보호와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공문서로 볼 수 있다. 몸에서 떼지 말아야 할 여행 소지품 1호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의 여권 중에서 가장 세련된 디자인은 스위스 여권이다. 스위스 여권은 펜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수첩을 연상시킨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밝은 계통의 빨강색 표지와 십자가가 눈에 띈다. 지난 2006년 디자인을 바꾼 네덜란드 여권은 한 권의 그림 역사책이다. 30여쪽에 이르는 속지에 네덜란드 역사를 삽화와 글로 표현했다.

색상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전남도가 10~15명 이상 여권발급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는 '여권발급 도우미 제도'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전남도의 민빠른 대응은 여권 발급이 지자체 민원처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해외여행이 일반화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칩에 개인 신상기록이 담겨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지적하는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마을을 돌며 여권발급서류를 모아 지자체에 신청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리 신청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된 여권은 펜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수첩을 연상시킨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밝은 계통의 빨강색 표지와 십자가가 눈에 띈다. 지난 2006년 디자인을 바꾼 네덜란드 여권은 한 권의 그림 역사책이다. 30여쪽에 이르는 속지에 네덜란드 역사를 삽화와 글로 표현했다.

색상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색감과 문양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전남도가 10~15명 이상 여권발급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는 '여권발급 도우미 제도'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전남도의 민빠른 대응은 여권 발급이 지자체 민원처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해외여행이 일반화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김재철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2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리부 2200-616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제부 2200-617	어문제작부 2200-628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